

광
야
소
리

정 영 다 학 복 이 파
소 적 음 교 음 땅 위
년 인 세 들 을 의 웨
사 부 대 을 전 모 이
역 흥 의 변 하 튼 뜨
이 을 화 며 청 띠
다 위 시 소
한 키 년
! 며 들
에
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부

사 랑 16. - 떠남이 아름다운 사람

난 아직 당신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

그 뒷모습을 보면
떠나 보낼 수 있는
용기 나지 않을 것 같아
애써 따뜻한 마음 담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떠남이 당신과 나 사이에 오히려 유익이라는
그 모진 말을 기억하며
움켜진 손 땀 께이도록
다문 입술 아리도록 깨물며
먼 하늘만 보며,

당신이 떠나신다는
,
당신이 떠나셨다는
,
이야기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깊은 밤 숨죽이며
눈물 벌컥 들이킬 때
어스름레한 새벽 빛 사이로
시리도록 푸르른 하얀 옷자락
빨강게 충혈된 눈을 스치며
당신

아... 난 아직 당신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

애써서 사랑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을 떠나 죽기 위해
2000
그때 고통의 한 주간을 보내며 부활을 맞이한 제자를 생각
하며 나의 사랑 예수님께 글 한 자락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8 45 .

예 배 순 서

“ ”

- 📍 아침이슬 같은 연주 챔버팀
- 📍 찬 양 찬양팀
- 📍 기 도 흥근형 학생
- 📍 축하와 환영..... 박정수전도사님
- 📍 떠남이 아름다운 사람... 박정수 전도사님
(국으로 의료 선교 가시는 아버지와 함께
중국으로 떠나는 김소현 학생)
- 📍 말 씀 !도배전도사님
(6:1~15)
- 📍 헌 금 다같이
- 📍 주기도문 다같이

- 📍 기다려지는 광고..... 광고팀
- 📍 쇼그룹 시간 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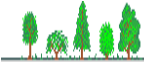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 ..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부르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순전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바로 오늘 이곳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주 말씀에 내 발에 등이요



표준새번역

KJ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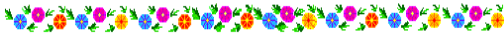
요한복음 6 :1~ ;

John 6 :1~ ;

1. .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2.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3. |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4. |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5. |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 |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6. |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7. "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이 백 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8. |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9. " |기 한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 " |사람들을 앉혀라" 그 곳에는 잔디가 많았다.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11. |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12.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 |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13. |래서 보리빵 다섯 개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14. |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 |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15. |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1.After these things Jesus went over the sea of Galilee, which is the sea of Tiberias.
 2.And a great multitud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his miracles which he did on them that were diseased.
 3.And Jesus went up into a mountain, and there he sat with his disciples.
 4.And the passover, a feast of the Jews, was nigh.
 5.When Jesus then lifted up his eyes, and saw a great company come unto him, he saith unto Philip, Whence shall we buy bread, that these may eat?
 6.And this he said to prove him: for he himself knew what he would do.
 7.Philip answered him, Two hundred pennyworth of bread is not sufficient for them, that every one of them may take a little.
 8.One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aith unto him, There is a lad here, which hath five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es: but what are they among so many?
 10.And Jesus said, Make the men sit down. Now there was much grass in the place. So the men sat down, in number about five thousand.
 11.And Jesus took the loaves;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distributed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to them that were set down; and likewise of the fishes as much as they would.
 12.When they were filled, he said unto his disciples, Gather up the fragments that remain, that nothing be lost.
 13.Therefore they gathered them together,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fragments of the five barley loaves, which remained over and above unto them that had eaten.
 14.Then those men, when they had seen the miracle that Jesus did, said, This is of a truth that prophet that should come into the world.
 15.When Jesus therefore perceived that they would come and take him by force, to make him a king, he departed again into a mountain himself alone.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 !난 주간 (Passion Week or Greet Week Season)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수난주간이라고 한다. 이 주간은 사순절의 절정기로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주간을 뜻한다. 이 주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간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에 따라서 골고도의 슬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게 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행사이다.

금년은 4 8 4 15 ! 즉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잃어버린 양 곧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의 외면 속에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극치를 이룬다.

이를 기념하여 지키는 고난 주간에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먼저 각자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화된 삶을 위한 결단의 기회로 삼게 한다.

• 난 주간의 생활 실천 사항

1. 하루 한끼나 금요일 하루를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대로 금식하고 금식미를 모으거나 금식 헌금을 하여 북한 동포나 어려운 이웃이나 청소년.
2.
3.
4.
5. TV , 전도 생활에 힘쓴다.
6.
7. 고난받은 속죄양의 왕관을 상징하는 보라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검소한 옷에 보라색 리본을 달아서 왕으로 오신 고난의 주를 생각한다.
8. 집안이나 사무실의 달력에 고난 주간을 보라색으로 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위한 고난에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다.

1. (Palm Sunday; 4 8)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다. 간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나귀의 등과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거나 손에 들고 " !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 ! 환호를 올리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래서 이 주일은 '산나 주일'(Dominica Hosana)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교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생각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다.

- 1) 예수님의 행적
 - ①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 ② 성을 바라보시며 우심
 - ③ 베다니로 가서 쉬심

2. (4 9 :)

당시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 제물로 쓰기 위한 짐승을 끌고 와야 하는 불편에 착안하여 소나 양, 비둘기 외에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나무, 소금 등이 매매와 각 지역 화폐를 성전 화폐로 교환하는 환전상들의 상행위가 성전 봉사자들과의 결탁으로 성행하고 있었으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이 일반 시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런 모습들은 곧 유대교의 부패와 성전 지도자들의 타락을 반영해 주는 것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라기 보다 가증스러운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님은 타락한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공박하시며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매매하는 자들과 함께 가축들을 모두 내어쫓아야만 하셨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타락한 종교에 대한 경고와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 자체이신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더럽혀진 성전에 대하여 격분하신 나머지 참 제사장의 자격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다. 이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과 주의 몸 된 거룩한 교회를 성결케 하시려는 거룩한 분노이다.

이 날 예수님이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행함과 실천은 없고 형식만 무성한 이스라엘은 패망한다는 것을 경고하신 날이다.

1) 예수님의 행적

- 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
- ② 관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청결케 하심
- ③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를 고치심

2) 생활실천

- ① 고난 묵상: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왕권과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계통의 옷을 챙겨 두도록 하고 달력에 한 주간을 보라색으로 칠하게 한다. 교회에서는 보라색 리본을 만들어 두었다가 예배 후에 나누어주어 옷에 달고 주의 고난을 늘 생각나게 하여 묵상하게 한다.
- ② 절제 생활: 육식이나 커피 등 기호 식을 삼가며 일상생활 전반을 절제한다.
- ③ 금식 시작: 1 : 간 혹은 매일 조식만이라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작

3. (4 10 :)

이 날은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도 권위로 대답하시고 논쟁하신 날이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시험하는 서기관들의 질문에 '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전에서 연보 궤를 향하여 앉아서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당시 가장 작은 화폐단위인 렘돈 둘을 궤에 넣는 한 과부를 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 칭찬 하셨으니 이는 그 때 유월절에 전국에서 모인 순례자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연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보다 더 칭찬하셨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넣었으나 이 과부는 있는 것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과부의 연보를 칭찬하신 것은 신앙의 핵심이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양(量) |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적인 질(質) |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공개적인 전도의 최후의 날이기도 했다. 피곤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 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날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으며 특히 종말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기쁨 부음을 받으신 것과 유다의 반역도 이 날의 일이었다.

1) 예수님의 행적

- ① 권세나 세금에 관한 문제를 정립하심
- ② 두 아들, , 왕의 아들 등 비유로 말씀하심
- ③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낱알이 지적하심
- ④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에 답하심
- ⑤ 과부의 두 렘돈의 헌금을 칭찬하심

4. (4 11 :)

많은 변론으로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쉬신 날이어서 ' 그러나 이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경고와 교훈을 하셨다.

이 날 여기에서 주님은 영원히 기념될 만한 한 여인의 헌신을 받으신다. 마리아로 호칭되는 여인이 자기 행동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곧 값진 향유를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 드려 주를 섬겼으니 이는 곧 ' 행한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식사 초청을 한 전에 문둥이었던 시몬은 마리아 못지 않은 은혜를 받고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까지 하여 자기 집에 모시는 영광을 허탈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유다를 비롯하여라 받았으나 욕심 때문에 주께 봉사할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영교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군관들이 예수를 체포할 은밀한 흥계가 꾸며지고 있었다.

1) 예수님의 행적

- ① 대 환난과 징조와 장래 일에 대해 말씀하심.
- ② 열 처녀, 갈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심
- ③ 이방인을 방문하시고 불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심
- ④ 한 여인의 영원히 기념될 헌신을 받으심
- ⑤ 가룟 사람 유다가 배반할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아심

5. 변민의 날 혹은 세족의 날
(Maundy Thursday; 4 12 :)

니산월 14 !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셨으며 오후 6 !에 최후의 만찬 식을 제정하시고 최후의 교훈을 하신 날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날이어서 세족(洗足)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 |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13:34) 이 일을 통하여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고 사랑하라 (13:12-15)

또 이 날 고별사를 하신 후 밤 11 !경에 열 한 제자를 데리시고 겔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구속 성취를 위한 고뇌의 기도를 드리셨으니 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이었다. 이어 자정이 되자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신호로 체포되었다.

1) 예수님의 행적

- ① 유월절 식사를 준비케 하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심
- ②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
- ③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를 지적하심
- ④ 성령을 약속하시고 중재의 기도를 해 주심
- ⑤ 겔세마네 동산에 올라 고뇌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심
- ⑥ 베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심

6. (4 13 :)
금) - 성금요일

수고일 이라고도 하는 금요일(Good Friday) :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슬픈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인간을 위한 그의 사역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에 부활사건 전체를 선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금요일 사건은 선한 것(Good)

주님은 자정에 유다에 의해 체포되셔서 새벽 1 !경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다가 베드로의 부인의 아픔을 맛보시고 새벽 2 새벽 3 !경 사상 유래 없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비공식적

으로 소집돼 심문을 받는다. 4 |반 경 가야바의 심문을 받고 산헤드린에서 사형 구형을 받는다. 5 |에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 1 | 심문을 약 30 . 6 |경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 로마 병정들에게 회롱을 당하시다가 6 |반 경 급기야 떨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사형이 확정되자 채찍질을 당하시고 옷이 벗기워지고 침뱀음을 받으시는 등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다.

사형 집행을 위해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죽음의 행진을 하셨다. 9 |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 사형을 집행한지 6 |간 동안 지독한 고초를 당하신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면 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은 온 세상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 이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성자의 모습이며,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희생양의 모습이였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으며 온 세상 인류에 대한 구원의 완성 이였으며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다. 사망 권세를 이기실 생명의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아리마테 요셉의 빈 무덤을 인봉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헛되이 지키기 시작하였다.

1) 예수님의 행적

- ① 베드로로부터 부인을 당하심
- ② 심판 주로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심
- ③ 온갖 수치와 조롱과 십자가를 지심
- ④ 가상 칠언(架上七言 · 말씀하심)

제1 "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3:34)

제2 " ... "(19:26)

제3 " |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3:43)

제4 " !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7:46; 15:34)

제5 " "(19:28)

제6 " "(19:30)

제7 "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23:46)

- ⑤ 아리마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심

7. (4 14 :)

고난 주간이 끝나는 토요일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이었으며 사순절 최후의 날이기도 하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후 그 영혼은 아버지의 품에서, 육신은 아리마테 요셉의 새 무덤에서 안식하시면서 부활을 준비하셨다. 순종과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위한 조용한 안식의 시간이였다.

출처 : <http://www.immanuel21.org/min00133.htm>

읽기 좀 지루하셨죠?!
그러나 매일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물어보아요. ...

친구들 보세요.....



-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처럼 광고 후 소그룹만 두란노홀에 남고 모두 조용하게 나아주시기를.....
-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한끼 정도 금식하는 것 어떨까요?!
- 돌아오는 15 Happy Easter!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 새로운 학생과 소그룹편성이 안된 학생은 예배 후 뒤쪽 < Welcome > 글자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생님들 보세요.....



- 예배후 교사모임이 있습니다. 302 11 | 20 .
- 이번 주 목요교사 모임에서 이상규 목사님이 “십자가의 도” . 선생님들 많이 참석해주세요.

이번 주 주보에는 글씨가 **참** 많아요.

읽기 힘들 정도로 깨알같이 글씨가 많죠?!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깨알같은 글씨 속의 내용을
오늘 혹은 언젠가는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맘으로
실었습니다.

다음 주 이번! 광야소리 기다려주시고 **요!**

• 1등부 예배
매주일 선교관 두란노홀 08:45

• !기시는 분들

신도배	전도사님
권용갑	전도사님
박정수	전도사님

• 광야소리꾼들
광야소리꾼이 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이은주 (5mercy@korea.com)